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28~3/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구슬	김성철	오타쿠
2	불교명상입문:현대인을 위한 불교명상 수행의 이해와 접근	강명희	담앤북스	7	입보리행론강해(1) 대승불법의 정수팔만사천법문의심요	샨티데바 게송/진메이펑췌 강설	운주사
3	어싱: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8	신심명 강설(총무원장 진우스님의)	진우스님	불교신문사
4	보리도차제광론2(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2)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9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스님 강설	이층버스
5	한글아함경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10	중관학 특강:색즉시공의 논리	김성철	오타쿠

“깨닫고자 한다면 분별심을 버려라”



총무원장 진우스님의 신심명 강설

信心銘

총무원장 진우스님의 신심명 강설

진우 스님 지음

불교신문사/ 2만8000원



일흔셋 시문으로 구성된 ‘신심명’ 다양한 비유 · 사례들 들며 풀어 스님 강설 곳곳 ‘인생 팁’ 눈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중국 선종 제3조 승찬 대사의 〈신심명〉은 발심부터 성불까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심에 관해 지극한 마음으로 남긴 사언절구의 146구 584자 게송이다. 일흔셋 시문으로 구성된 신심명은 선(禪)의 진면목, 중도(中道)의 요체가 간명하게 담겼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 〈신심명 강설〉을 펴낸 이유는 명징하다. 분별된 마음으로는 극락과 지옥, 배부름과 배고픔의 윤회를 계속 반복하니어서 대중들이 분별심이 사라진 선의 마음을 가져 자유로워지길 바라서다.

진우 스님은 분별심을 버리고 방하착하는 삶으로 가기 위한 다양한 사례와 방편을 예로 들고 세심하고 담백하며 유쾌·통쾌한 강설로 선의 궁극 중도의 길을 적확하게 제시한다. 이는 우리가 여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인생 팁’이기도 하다.

〈신심명 강설〉을 통해 진우 스님이 강조하는 것은 ‘분별심을 내려놓아라’다.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남보다 돈을 많이 벌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나를 돋보이게 할 것인가. 건강과 장수, 내 자식 잘 살도록 잘 기르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를 달성하려면 욕심을 부려야 한다. 내 것을 빼앗기지 않고 방어하려면 명예도 세워야 하고 끊임없이 시시비비해야 하며 필요하면 남을 속이고 싸움도 마다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인과의 작용을 피할 수 없는 법. 인과는 분별심에서 나오는 것으로 고락(苦樂)의 과보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진우 스님은 “부처님께서 45년간 장광설을 〈화엄경〉 〈금강경〉 〈아함경〉 〈법화경〉 〈열반경〉의 오교시를 통해 중생에게 깨우침을 가르쳤으나 이 모든 내용을 한 마디로 압축한다면 결국 분별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라며 “분별은 인과를 낳고 인과는 윤회를 낳는다”고 거듭 강조한다.

“부모 자식이나 가족 친지 친구 이웃 민족 등의 인간관계에 있어 정(情)이란 바로 나의 감정을 좋게 하기 위한 대상들에 불과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고락의 업은 스스로 각자가 자업자득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따지고 보면 부모 자신의 감정을 좋게 하기 위해 자식이라는 대상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진우 스님은 “어떻든 감정을 가진 중생은 감정의 프레임에 걸려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을 반복하여 거듭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육도(천상, 인간, 수라, 지옥, 아귀, 축생)의 틀에서 벗어나려면 감정 자체를 없앨 수 있는 중도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설한다.

“중도의 길을 가려면 매사에 있어서 감정의 속성을 잊지 말고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연습과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고락의 인과에 대한 철저하고 확고한 믿음, 신심을 가지고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버릇을 고쳐 여여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것을 원하고 바라는 마음마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애초 좋고 나쁨을 상정한 것이기에 이마저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제발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말라.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분별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지혜인이 되어야 합니다. 인과법칙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 날마다 좋은 날 즉 일일시호일이 될 것입니다.”

갑진년 새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값진 당부다.

‘삼보일배’ 수경 스님 특별기고 ‘눈길’

계간 〈불교평론〉 봄호



지난 2010년 조계종 승적과 화계사 주지, 불교환경연대 대표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연히 떠난 수경 스님이 〈불교평론〉 봄호(통권 제97호)에 특별기고를 해 눈길을 끈다.

새만금을 살리기 위해 전국을 삼보일배로 다니며 한국 환경운동사를 새로 썼던 수경 스님은 ‘욕망을 줄여야 합니다’ 제하의 특별기고를 통해 욕망의 충족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자비로운 삶으로 복덕구족을 지향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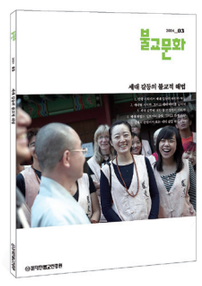
〈불교평론〉 봄호는 특집으로 ‘불교와 서양철학의 만남’을 기획했다. 이번 특집은 불교적 세계관과 사상을 근현대 서양 철학자들의 통찰과 비교해 서로 어떤 유사성과 연관성을 띠고 있는지 살폈다.

내년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 집필 100년을 맞아 〈불교평론〉은 당대의 시대상과 역사성, 그리고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특별기획 ‘백 년의 시집 〈님의 침묵〉을 다시 읽는다’를 만해 문학의 권위자인 이선이 경희대 교수의 집필로 마련했다. 불교평론은 “앞으로 4회에 걸친 연재를 통해 필자는 그간의 통념적인 해석을 넘어서는 새로운 인식을 제시해 100년이 지난 ‘님’이 오늘에 생성하는 ‘지금-여기’의 사유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세대 갈등, 부처님 가르침으로 풀다

월간 〈불교문화〉 3월호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발행하는 불교 대중 문화지인 월간 〈불교문화〉 3월호(통권 제283호)를 발간됐다.

3월호 특집은 ‘세대 갈등의 불교적 해법’으로 세대 차이와 갈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세대 갈등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해소 방안을 살폈다.

2024년 상반기 캠페인 ‘마음챙김하면서 걷자’는 이휘재 심신치유센터 ‘숨터’ 대표가 걷기를 통해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해주었음을 전했다.

이 밖에도 ‘자현 스님의 비하인드 팔상도, 쌍림열반상도’, ‘불교 발달사, 중국 불교’, ‘사찰에는 재미난 이야기가 숨어 있다, 춘천 오봉산 청평사’ 등 풍성한 읽을거리가 담겼다.

신중일 기자

깨달음의 여정 ‘십우도’ 조명

월간 〈불광〉 3월호



불광미디어가 발행하는 월간지 〈불광〉 3월호(통권 제593호)가 발간됐다. 3월호의 주제는 ‘십우도(十牛圖)’다. 십우도는 마음을 소에 빗대 마음을 찾아가는 과정을 열 장의 그림으로 그린 것으로 심우도(尋牛圖)로 불리기도 한다. 곽암 선사와 보명 선사의 십우도와 십우도송이 각각 전해지는데, 우리나라 사찰벽화에는 주로 곽암 선사의 십우도가 그려져 있다. 보명 선사의 십우도는 목우도(牧牛圖)로 불리기도 한다.

‘월간 불광’ 3월호에는 ‘곽암 선사의 십우도(정운 스님)’, ‘보명 선사의 목우도(윤희조)’, ‘티벳불교의 목상도(차상엽)’ 외에 ‘일본 불교의 십우도(지미령)’, ‘선시 속의 소(동명 스님)’, ‘한국화의 소(손태호)’, ‘십우도를 모티브로 활동하는 박그림 작가 인터뷰’ 등이 수록돼 십우도의 다양한 면을 만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한류는 이미
천 년 전에 시작되었다!

K-컬처(Culture)의 원조,
강진 비색청자의 숨겨진 이야기

1권
청자의 대부(代父) 해상왕 장보고,
탐진 땅과 바다에 푸른 꿈을 심다!

2권
고려 도공의 독창적인 상상력과 기술력,
천하제일의 비색청자를 완성하다!

자신만의 고유한 작품세계를 천착해 온
베테랑 소설가 정찬주의 또 한 편의 수작(秀作)



정찬주 장편소설
깨달음의 빛, 청자

정찬주 지음
각 권 18,000원
각 권 336쪽

추천의 말

나는 ‘K-컬처’의 뿌리를 알고 싶어 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겠는가. 천 년 전 바닷길을 통해 전해진 강진 비색청자가 중국인과 일본인들을 열광시켰던 역사적 사실은 실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_홍기삼(전 동국대 총장, 문학평론가)

홍익인간, 풍류도야말로 유불선(儒佛仙)은 물론 기독교 등 모든 유의미한 사상과 종교를 포괄하는 근원 사상 아니던가. 그런 사상, 마음을 지키고 있는 자만이 청자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며 독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작품이다. _이경철(문학평론가)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